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연준, 증시와 행정부 정책 발표에 일희일비 하지말라”

[미국 금융]
- Bloomberg: 한·미간 환율 논의 상황에서 달러 하락

[미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세금 방안, 하원 표결 예정
- Bloomberg: 공화당 감세안의 승자와 패자는?

[IRA 인플레 감축법]
- WSJ: 미 하원, IRA 감축법 전기차 세금 공제 없앤다

[무역 전쟁]
- WSJ: 기업들, 미·중 관세 유예에 제품 반입 서둘러
- Bloomberg: 중국 관세 유예에도 불구, 소기업체들에는 여전히 ‘악몽’
- Bloomberg: 트럼프 관세로 캘리포니아 세수 1백60억 불 줄어

[주택]
- CNBC: 이자율 상승해도 주택 모기지 수요 회복이자율 상승해도 주택 모기지 수요 회복

[글로벌 경제]
- WSJ: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 반토막, 1.6%>0.8%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YahooFinance: 3월 미국으로의 스마트폰 출하량 30% 증가
- WSJ: 버버리, 약 1700명 인력 감축 계획 밝혀
- CNBC: GM, ‘획기적인’ EV 배터리 개발 추진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 Must Be Steady Hand Amid Stock, Policy Moves, Goolsbee Says
시카고 연준 총재, “연준, 증시와 행정부 정책 발표에 일희일비 하지말라”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연준 관리들은 매일 변화하는 증시와 행정부 정책 발표들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 데이터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시사하면서 “4월에 변동성이 컸다”면서 “우리는 현재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연준 관리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장기적인 일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Dollar Drops as Korea Talks Fuel Bets Trump Wants Weaker Currency
한·미간 환율 논의 상황에서 달러 하락

-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들과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달러 절하를 원하고 이들 국가들의 통화 절상을 바라고 있다는 추정 때문에 달러는 이번 주 상승분을 반환했다.
- 이와 관련 미국과 한국 관리들이 이달 5일에 밀라노에서 환율 의제를 논의했고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에 달러의 약세를 보였다. 원화는 거의 2% 가까이 상승했으며 엔화도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미 행정부]

Bloomberg: Trump Tax Plan Gains Momentum in House as It Heads to Floor Vote
트럼프 세금 방안, 하원 표결 예정

- 연방 하원의 가장 막강한 세입 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양당 간의 찬반이 갈릴 수 있는 기업, 가구,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수조 달러의 감세 법안을 승인했다.
- 이 법안에는 낮은 개인 소득세의 영구적인 연장, 팁과 오버타임 세금 폐지, 노인과 차량 구매자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감세안이 시행되면 올해부터 향후 2028년까지 유지된다.
- 이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은 이달 말에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Here Are the Winners and Losers in the Republican Tax Bill
공화당 감세안의 승자와 패자는?

- 공화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세금 개혁안의 승자는 혜택이 돌아가는 미국인 부유층, 스몰 비즈니스 업자, 사모펀드 업계, 국내 자동차 딜러, 팁을 받는 근로자, 부모, 기업들, 방위 계약 업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반면에 피해를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 세금이 높은 주의 주민들, 재생 에너지, 전기차 생산업체, 하버드 등 엘리트 대학들, 이민자들이 대상이 된다.

- 관련 계층별 구체적인 내역은 원본 참조.

Bloomberg 기사

[IRA 인플레 감축]

WSJ: House Bill Would Scrap EV Tax Credit
미 하원, IRA 감축법 전기차 세금 공제 없앤다

- 연방 하원의 막강한 세입 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내년 말까지 대부분의 전기차 구매 세금 공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이번 주에 도입했다.
- 3가지 혜택 항목에 제동을 걸었다. 우선, 신규 전기 자동차 구매 세금 공제 7천5백 불은 일부 제한 조건과 함께 내년 말까지만 유지된다. 단. 내년 1월부터 전기차 20만대 미만 생산 업체는 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 둘째로, 중고차 구매 세입 공제 4천 불은 올해 이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셋째,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상업용(리스용도 전기차량 7천5백 불 혜택도 올해 중단될 예정이다).
- 전기차 판매는 4월에 이마 5%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전기차 평균값 4만5천6백 불이 5만1천2백 불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무역 전쟁]

WSJ: CEOs Rush to Get Their Shipments From China While Trade Truce Lasts
기업들, 미·중 관세 유예에 제품 반입 서둘러

- 미국이 향후 90일 동안 중국산 관세 145%를 30%로 낮추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컨테이너 해외 반입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가격과 낮은 수익에 직면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세 우려 때문에 중국산을 벗어나 다른 수입처로 옮기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Trump's Pause on China Tariffs Is Still a 'Huge Nightmare' for Small Businesses
중국 관세 유예에도 불구, 소기업체들에는 여전히 '악몽'

-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춘 트럼프의 결정에 소기업들은 한숨 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업주들은 여전히 높은 관세와 불확실성 때문에 관세 유예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90일 관세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관세율에 대해 분명한 입장 없는 데다 짧은 유예 기간과 계속적인 불투명으로 인해 새로운 주문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s Tariffs Will Lower California's Revenue by $16 Billion
트럼프 관세로 캘리포니아 세수 1백60억 불 줄어

-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국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로 내년 회계연도에 주 세수가 1백60억 달러 줄어들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자본 이득세가 1백억 줄어들고, 기업 수익 감소로 25억 불, 개인소득세 세수가 35억 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Bloomberg 기사

[주택]

CNBC: Mortgage demand from homebuyers continues to recover, even with higher interest rates
이자율 상승해도 주택 모기지 수요 회복

-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이자율이 6.84%에서 6.86%로 올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신청 수요는 상승했다고 모기지은행협회(MBA)는 밝혔다. 즉,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1.1% 상승했다고 전했다.
- 같은 기간 주택 재융자 신청 건수는 0.4% 하락했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South Korean Think Tank Halves 2025 Growth Forecast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 반토막, 1.6%>0.8%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올해 2월 예측치인 1.6%에서 절반으로 하락했다. 이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 관세 인상에 크게 영향받기 때문이다.
-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10%기준 관세를 포함하여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무역 협상을 위해 90일 동안 유예하였다.
-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수출 성장률 또한 작년의 7.0% 증가율에 비해 크게 하락한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YahooFinance: US smartphone shipments rose 30% in March due to tariff concerns, report says
3월 미국으로의 스마트폰 출하량 30% 증가

- 애플, 삼성 등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스마트폰을 급격하게 들여오고 있다. 높은 관세 부과 전에 서두르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30%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높은 수입 관세로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 Gerrit Schneemann은 “3월과 4월 초에 스마트폰 출하량을 증가시키면 애플이 여름 중반에서 후반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ahooFinance 기사

WSJ: Burberry to Cut 1,700 Jobs on Persisting Luxury Demand Downturn
버버리, 약 1700명 인력 감축 계획 밝혀

- Burberry가 전체 인력의 약 20%인 1천 700명가량의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명품 시장의 수요 감소와 미 관세의 영향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이러한 조직 개편의 효과로 2027년 4월에 시작되는 회계연도까지 약 7천9백8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 인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Burberry CEO인 Joshua Schulman은 영국에서 트렌치코트 생산을 계속하고, 하반기에 영국 Castleford 부지에 대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CNBC: GM unveils new ‘groundbreaking’ EV battery tech, aims to be first to market
GM, ‘획기적인’ EV 배터리 개발 추진

- GM(General Motors)이 전기 자동차에 사용될 새로운 배터리인 LMR프리즘형 배터리셀을 개발 하고있다. 회사는 이 배터리가 자동차 제조 비용 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한다.
- LMR프리즘형 배터리 셀은 현재 GM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EV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와 니켈 대신에 망간과 같이 보다 널리 사용되고 가격이 저렴한 광물을 사용한다. 또한, 기존 LMR배터리의 짧은 수명을 LG에너지솔루션과 개선시키는 중이다.
- GM은 2030년 이전까지 이러한 새로운 배터리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고 밝혔다.

CNBC 기사

[보고서]

'90일 휴전' 끝나기 전에…크리스마스 물량 확보전 불붙나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업체들이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물량 확보전에 일찌감치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상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매년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을 수입하지만,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 휴전이 만료(8월 10일)되기 전에 주문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FT는 항만과 해운사들이 기업들의 물량 확보전이 예상됨에 따라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